

高敞 岩峙里 支石墓를 통해 본 無墓室 支石墓의 性格*

金 善 基**

목 차

- | | |
|------------------------|--------------------------|
| 1. 머리말 | 몇 가지 문제점 |
| 2. 고창 암치리 지석묘의 발굴성과 | 4. 호남 지방 무묘실 지석묘의 특징과 성격 |
| 1) 발굴경위 및 경과 | 1) 무묘실 지석묘의 특징 |
| 2) 조사성과 | 2) 무묘실 지석묘의 성격 |
| 3. 무묘실 지석묘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 5. 맺는말 |

< 요약 >

湖南地方에는 無墓室 支石墓들이 상당수가 발굴되고 있다. 이들 型式을 대체적으로 圍石式으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대형의 上石 아래에 드물게 支石을 배치하는 소위 祭壇이나, 巨石記念物的인 성격으로 보는 형태의 것은 無墓室 支石墓로 구분하여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無墓室 支石墓는 上石이 대형이라는 점과 支石의 수는 4매를 기본으로 하고, 上石이 큰 경우에는 7매의 支石을 고이는 경우도 있다. 支石의 높이는 평균 45cm로 높거나 柱形의 형태를 보인다는 特徵을 가지고 있다.

고창 암치리에서 祭壇이나 巨石記念物的인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대형의 上石을 갖고 주변에 6개와 중앙에 1개의 지석을 고인 支石墓가 發掘調査되었다. 조사결과 上石 아래 敷石의 상면에서는 副葬品의 인 성격을 갖는 紅陶片 1점, 無文土器 2개체분, 조잡한 형태의 石斧 1점이 출토되어 이 支石墓는 墓葬的인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湖南地方에서 이러한 無墓室 支石墓에서 遺物이 출토되는 예는 약 50%에 달한다. 그리고 墓室이 있는 경우에도 많은 支石墓에서 遺物이 출토되지 않는 예가 있어서 無墓室 支石墓를 墓葬的인 성격으로 보지 않는 것은 속단이 아닌가 생각된다.

無墓室 支石墓를 墓葬的인 성격으로 보았을 때 과연 어떠한 葬法을 사용했는지가 제일 큰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資料는 거의 없다. 단지 日本 支石墓에서 木棺의 사용 예나 우리 支石墓에 있어서 棺臺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예 등에서 木棺의 사용을 추정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上石 아래의 조잡한 敷石施設은 木棺을 안장한 위에 흙으로 덮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이 외에 二次葬이나 火葬法의 사용도 상정해 볼 수 있다. 고창 운곡리 支石墓 上石 아래에서 近代의 甕器 안에 어린이 뼈가 담겨 놓여 있었던 예는 하나의 參考資料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러한 葬法에 관한 문제는 어디까지나 추론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 많은 자료가 축적되면 다시 검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호남지방에서 발견되는 無墓室 支石墓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해 보았다.

* 한국대학박물관협회 1999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논문임.

** 원광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1. 머리말

湖南地方 특히 전라남도는 우리 나라 支石墓 분포에 있어서 최대 밀집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¹⁾ 이들에 대해서는 주암댐 축조와 더불어 활발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²⁾ 아울러 공단부지 조성과 도로 개설 등에 의해 많은 수의 支石墓가 발굴되어 그 동안의 연구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하지만 상당부분의 支石墓가 발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매납된 유물이 전혀 없거나 양적으로 희소하여 아직도 연구진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전북지역에서도 최근 용담댐의 축조와 아울러 상당수의 支石墓가 조사되어³⁾ 앞으로 좋은 연구자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호남지방은 支石墓의 분포수가 많음과 더불어 그 형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 대별하면 卓子形·蓋石形·碁盤形·地上石槨形·圍石形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圍石形은 주암댐 수몰지구 발굴조사에서 많은 수가 밝혀져 하나의 형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圍石形이라 함은 上石의 아래에 여러 개의 支石을 돌려 그 자체가 하나의 墓室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대형의 上石 아래에 4-8매의 支石을 놓고 하부에 埋葬主體部가 없는 소위 無石室支石墓⁴⁾를 포함시키기도 한다.⁵⁾ 일반적인 圍石形에 비해 이 無墓室支石墓는 上石이 대형이고, 군집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으면서 하부에 매장주체부가 없기 때문에 이를 祭壇支石墓, 혹은 墓標石支石墓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축조집단을 상징하는 記念物的인 성격으로,⁶⁾ 혹은 信仰이나 儀禮處로 보거나 나아가 里程標的인 역할로 보기도 한다.⁷⁾

- 1) 전남지방에서는 2,208개 군집에 19,058기의 支石墓가 조사되었다. (이영문, 1999, 「전라남도」 『한국 지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Ⅱ)-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문화재청, 서울대학교 박물관) 935.
- 2) 전남대학교 박물관, 1986·1987, 『주암댐수몰지구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I~IV
- 3) 국립전주박물관, 1996, 「진안용담댐 수몰지구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자료(국립전주 박물관, 전북대학교 박물관, 원광대학교 박물관)
김승욱, 1999, 「진안 용담댐 支石墓 발굴조사」 『제42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전국역사학 대회준비위원회)363-379.
호남문화재연구원, 2000, 「진안 망덕 청동기시대유적」 『용담댐수몰지구내 문화유적 4차 발굴 조사 및 지석묘 이전복원 지도위원회자료』(전북대박물관, 호남문화재연구원)15-24.
- 4) 支石만이 있고 埋葬主體部가 나타나지 않는 支石墓를 無石室支石墓로 부르기도 하며, 無石槨形支石墓 혹은 無石槨式支石墓로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支石墓의 下部構造 즉 墓室의 형태는 石槨型, 石棺型, 土槨型, 甕棺型 등으로 세분되어질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용어를 無墓室支石墓로 부르고자 한다.
- 5) 이영문, 1993, 「전남지방 지석묘사회의 연구」 (한국고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6) 이영문, 1999, 「전라남도」 『한국 지석묘(고인돌)유적 종합조사·연구(Ⅱ)-분포, 형식, 기원, 전파 및 사회복원-』(문화재청, 서울대학교 박물관) 945-946.
- 7) 이동희, 1997, 『순천 용당리 죽림 지석묘』(순천대학교 박물관) 32.

그런데 이러한 無墓室 支石墓에서도 부장품적인 성격의 유물이 간간히 출토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屍床이나 棺臺와 같은 성격의 돌갈림이 上石 아래에서 발견되고 있어서⁸⁾ 단순히 무덤의 기능이 아닌 祭壇적인 성격의 記念物이나 墓標적인 성격의 支石墓로만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다. 특히 高敞 岩峙里에서 조사된 대형의 支石墓 發掘에서 이러한 의문이 생기게 되었는바 이의 조사성과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湖南地方 無墓室 支石墓의 성격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2. 高敞 岩峙里 支石墓의 發掘 成果

1) 調査經緯 및 經過

高敞 岩峙里 支石墓는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암치리 산83-1임야 일대에 위치한다. 전북 고창농지개량조합에서 성송면 암치리 암치마을에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현 암치제 제방 앞에 새로운 제방을 축조하기 위하여 공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支石墓일 가능성이 있는 커다란 암석이 있음을 발견하고 본 박물관에 신고하여 왔다. 그래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대형의 支石墓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1999년 12월 14일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조사 승인을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금번 조사된 이 支石墓는 고창군 성송면에서 장성군 삼계면으로 연결되는 도로 남쪽 산사면 북단부에 위치한다. 1983년 全北大學校 博物館의 地表調査에서 암치리 암치마을 일대에 약 30기의 支石墓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된 바 있었으며,⁹⁾ 1984년 金學輝의 조사에서는 암치마을에 21기의 支石墓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¹⁰⁾ 그러나 이후 경지정리과정에서 대부분 파손되고 금번 조사된 支石墓와 그 아래 양계장 옆에 2기, 암치마을 입구 진동에 5기만이¹¹⁾ 원위치를 지키고 있을 뿐이다.

8) 이 돌갈림의 흔적을 조사팀은 파괴된 석실 바닥으로 보고 있다. (서성훈·성락준, 1984. 『고흥장수제지석묘조사』(국립광주박물관) 40-42.

9) 전북대학교 박물관, 1984. 『고창지방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전북지방문화재조사보고서 제4집) 46-48.

10) 김학휘, 1984. 「고창군 성송면일대 선사유적 조사보고」 『향토문화유적조사』(사단법인 향토문화개발협의회) 제3집, 12-16.

11) 김선기, 1997. 「고창지방 주형지석을 갖는 지석묘에 대하여」 『호남고고학보』(호남고고학회) 제5집, 167-168.

12월 14일부터 주변 잡목제거, 지형측량 및 上石의 중심 축을 기준으로 기준목을 설정 支石墓의 현상실측을 실시했다. 上石의 주변을 일정한 범위로 흑색부식토인 표토 제거 작업을 실시하자 支石墓 上石 周緣을 따라 아래에 敷石施設¹²⁾이 나타나고 있을 뿐이었다. 주변에 대해서도 탐색갱을 설치하여 조사했으나 특별한 유구가 노출되지 않아 도로 개설 등 上石제거작업을 준비했다.

上石제거에는 150톤과 120톤 크레인 2대가 동원되었으며, 제거과정에서 支石墓 上石의 무게는 85톤임이 확인되었다. 支石墓가 있는 지역은 제방 건설을 위해 굴착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 支石墓 이전복원을 대비해서 上石은 공사현장사무소 마당으로 옮겼다.

上石 아래에는 表土層인 黑色腐植土 중에 무질서한 잡석과 함께 甕器片이 노출되어 이들에 대한 제거작업을 실시하자 敷石施設이 노출되었다. 敷石 상면에서는 약간의 無文土器片이 출토되고, 紅陶片과 石斧가 각각 1점씩 출토되었다. 埋葬主體部가 나타나지 않아 實測 후 敷石 일부를 제거하면서 조사를 실시했으나 역시 埋葬施設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敷石 아래 지하에 매장주체부를 두는 예도 있고, 또한 支石墓의 축조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해 남북방향과 동서방향 2개소에 探索坑을 설치 斷面調査를 실시했으나 역시 埋葬主體部는 없었고 단지 잡석층으로 형성된 地盤層에 성토를 하고 支石墓를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盛土層은 주로 명갈색사질점토층이었으며 중앙에 놓인 支石 북쪽은 일부 잡석들도 함께 섞여 있었다.

2) 調査成果

조사 결과 舊地表面은 동쪽보다 서쪽이 약 60cm 가량 높으며, 上石은 지형에 따라 西高東底의 형태를 보인다. 上石의 장축은 正北에서 서쪽으로 87도 기울었으며, 上石의 長軸은 768cm이고 短軸의 최대 폭은 504cm이며, 두께는 180cm~90cm의 규모이다. 上石의 평면 형태는 半圓形에 가까운 형태이나 남측의 上石 일부가 떨어져 나간 흔적이 있으며, 上石 하단 周緣部를 따라 敷石施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의 형태는 長橢圓形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上石의 斷面形態는 長方形에 가까웠다.

支石은 上石의 주연을 따라 북쪽에 3매와 남쪽에 3매를 고이고 있으며, 上石 제거 후 조사

12) 일부에서는 敷石과 積石을 뚜렷하게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筆者는 단순하게 板石이나 雜石 등을 펴 깔은 형태를 敷石으로 부르고, 돌을 쌓은 흔적이 있어 墓槨 구성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것을 積石으로 부르고자 한다.

결과 중앙에도 1개의 支石이 노출되어 모두 7개의 支石을 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支石의 높이는 70-30cm로 일정하지 않고 북서우와 남서우부에 위치한 支石은 柱形의 형태를 보이거나 나머지는 괴석형을 하고 있다. 남동우의 支石만이 현상변화가 없었으며, 북쪽 중앙의 支石은 안으로 완전 도괴되었고 나머지 支石들은 북동방향으로 기울었다. 북동우부와 중앙의 支石은 하중에 의해 심한 균열현상을 보이며, 단면조사에서 支石의 하부에는 적심을 고이거나 잔 자갈을 깔고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上石의 周緣을 따라 안쪽으로 길이 40-100cm 내외의 얇은 평판석을 깔거나 잡석을 깔은 敷石施設이 확인되었다. 敷石施設 중에는 매장주체부가 없으며, 지하에 매장주체부가 설치된 예도 있어서 남북방향과 동서방향의 탐색갱을 설치 표토하 2.5m까지 생토층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으나 유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생토층 상면은 얇은 잡석층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상면에 1m 내외로 성토하고 支石墓를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支石의 주변에서는 되파기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아 적심이나 잔자갈 위에 支石을 세워 놓고 성토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획성있는 支石墓 축조과정을 알 수 있었다.

유물은 支石墓 上石 아래 표토 상면과 표토층인 흑색부식토층에서 5개체분의 甕器片들이 수습되어 복원되었다. 내부 敷石施設 상면과 주변에서 무문토기 저부편, 동체부편, 구연편, 그리고 紅陶 구연편 등 모두 3개체분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일부 복원이 가능했다. 석기로는 조잡하게 가공한 石斧 1점이 출토되었다.

이와 같이 岩峙里 支石墓는 無墓室의 형태를 보이면서 일부 柱形支石을 가지고 있고, 上石은 얇은 판석형은 아니지만 단면이 장방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산기슭 경사면 말단에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祭壇고인돌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출토된 토기들은 비교적 큰 형태의 무문토기 2개체분과 紅陶片 및 石斧 1점만이 확인되고 甕器 외에 다른 종류의 土器片들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은 이 유물들이 일반적으로 支石墓에 埋納 혹은 副葬하는 유물이라고 하는 점에서 祭壇의 기능이라기 보다는 墓葬의 기능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확하게 어떠한 葬法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자료는 보이지 않지만 중앙에 세워진 支石의 서쪽으로 치우쳐서 3-4개의 상면이 평평한 판석상의 석재를 깔아 놓았는데, 이러한 흔적이 屍床이나 棺臺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¹³⁾ 왜냐하면 敷石 상면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13) 이러한 시상이나 관대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평평석의 깔림 형태는 고흥 장수제 제5호 지석묘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나 주위에 흩어진 석괴들로 미루어 석곽시설로 보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조사자들은 의견의 일치를 본 바가 있다.(서성훈·성낙준, 1984, 『고흥장수제지석묘조사』(국립광주박물관) 40-42.

주로 이 주변에서 수습되었기 때문이다.

3. 無墓室 支石墓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몇 가지 문제점

우선 대형의 無墓室 支石墓에 대해 支石墓를 축조하던 사회에서 여러 집단들의 협동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어떤 상징적인 기념물이 필요하였을 것이라고 상정하고, 지연으로 결속된 여러 집단의 공공집회 또는 타 집단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건조물로서 祭壇支石墓가 건립된 것으로 여겨진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祭壇支石墓의 특징으로는 첫째, 支石墓 墓域을 이룬 군집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1기만 독립되어 있는 것. 둘째, 거대한 괴석형 上石 아래에 대형 支石을 고여 외형상으로 웅장하고 타 支石墓와 구별되는 구조와 형태를 가진 것. 셋째, 계곡에서는 그 끝 부분에, 군집을 이룬 곳에서는 가장 지대가 높은 곳으로 주위를 관망할 수 있는 입지지역 등 세 가지로 요약된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祭壇支石墓의 예를 몇 가지 들고 있는데 보성 양동리와 영광 대전리는 주위를 관망할 수 있는 고개 마루와 구릉 정상부에 입지해 있고, 장성 원덕리와 승주 비룡리는 계곡 끝의 계곡평지에, 승주 풍교리는 계곡을 낀 산사면 등으로 입지조건이 각각 다르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祭壇의 성격을 띤 支石墓들은 외형적으로 웅장하게 보이는 괴석형 上石에 대형 支石 4-6개를 꺾 전형적인 남방식과, 柱形支石을 한 板石形 上石들이라고 하고 있다.¹⁴⁾

그리고 祭壇支石墓는 墓室이 없는 전형적인 南方式과, 입지조건 및 支石으로 보아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墓室을 이룰 수 없게 만든 北方式을 祭壇支石墓로 설정하기도 한다. 입지에 있어서도 이 유형들은 어디서나 쉽게 바라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며, 외형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들고 있다.¹⁵⁾

그리고 순천 요곡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에서는 圍石形은 제의적 목적으로 만들고, 석곽형은 무덤적 성격으로 만든 支石墓로 보고 있다.¹⁶⁾

14) 이영문, 1993, 『전남지방 지석묘 사회의 연구』(한국고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8-209.
 15) 이용조·하문식, 1988, 「우산리 곡천 고인돌」 『주암댐 수몰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Ⅱ』(전남대학교 박물관) 29.
 이용조·하문식, 1989, 「한국 고인돌의 다른 유형에 관한 연구-제단고인돌 형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63, 29-65.
 16) 최성락외, 1997, 「순천 요곡리 유적」 『호남고속도로 확장구간(고서~순천간)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Ⅱ』 (전남대학교 박물관) 296.

또한 無墓室 支石墓인 곡성 현정리 1호 支石墓의 발굴보고에서는 支石을 세우는 과정에서 석경과 석도 등이 매납된 예를 들어 수확도구로서의 농경유물에 주목하여 농경의례와 관련된 祭壇 또는 기념물의 성격으로 보았으며,¹⁷⁾ 곡성 연반리 1호 支石墓도 그 형식을 圍石形으로 보고 支石墓 군집에서 대표적이며 독립적인 上石을 갖는 예는 기능적으로 祭壇과 같은 기념물로 보고 있다.¹⁸⁾

그리고 고흥 장수제 支石墓 발굴조사보고에서는 제1호 支石墓는 대규모이면서 무석곽의 형태를 보이고 2호에서 상당히 떨어져있는데, 이는 사자 보호라는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무덤에 대한 기능보다는 힘이나 부를 상징하는 기념물 내지 건축물적인 위용과 그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규모가 작은 것보다 발전적인 형태이며, 支石墓 사회가 최성기를 맞았던 시기이거나 아니면 거석기념물에 대한 신앙이 고조되었을 때 축조된 것이라고 하여 기념물적인 기능으로 보고 있어¹⁹⁾ 대체적으로 無墓室 支石墓는 祭壇과 같은 기념물적인 기능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無墓室 支石墓를 墓標石으로 보는 예도 있다. 墓標石으로서의 기능은 묘역을 상징하는 기념물 내지는 묘역 조성 집단의 권위와 위용을 드러내기 위한 것, 또는 묘역을 표시하는 단순한 기능 등으로 보인다고 하고, 이는 支石墓群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支石墓 군집내에서 거대한 上石에 대형 支石을 고이고 있지만 그 밑에 石室이 없는 것으로 소위 圍石形 石室로 분류되는 것이며, 둘째 유형은 대구 대봉동 支石墓 발굴에서 제기된, 여러 石室이 있는 가운데에 無墓室 支石墓가 놓여 있는 것으로 나누고 있다.²⁰⁾

이 외에도 墟墓나 假墓의인 성격으로 보기도 하며,²¹⁾ 순천 용당리 죽림 支石墓 발굴조사 보고에서 제5호 支石墓는 上石의 형태가 사각주형을 보이고, 5개의 支石이 고여져 있는데 하나는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역수호신, 묘역수호신, 풍요기원신 등의 神體로 보기도 하며, 里程標의 기능으로 추정하기도 하여 매장의 기능보다는 立石의 기능에 의미를

17) 조현중외, 1997, 「곡성 현정리·연반리 유적」 『호남고속도로 확장구간(고서~순천간) 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I』(전남대학교 박물관), 230-231.

18) 조현중외, 1997, 「앞글」(주 16), 231.

19) 서성훈·성낙준, 1984, 『고흥장수제지석묘조사』(국립광주박물관) 52.

20) 이영문, 1993, 「앞글」(주 13), 209-210.

21) 和順 萬淵里 支石墓群은 모두 5기의 지석묘가 조사되었는데 上石이 원래의 위치에서 옮겨지거나 하부가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埋葬施設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여 墟墓나 假墓의 성격으로 해석하기도 한다.(임영진, 1993, 『화순 만연리 지석묘군』(전남대학교 박물관), 25-26.)

부여하고 있다.²²⁾

일단 無墓室 支石墓를 祭儀的 기능에 중점을 두고 祭壇이나 記念物的인 성격의 支石墓로 보는 경우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을 상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無墓室 支石墓가 祭壇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祭儀 儀式이나 儀禮 혹은 공동체의식에 필요한 나름대로의 신성한 지역을 그 장소로 채택했을 것이며, 같은 문화 패턴을 갖는 당시 청동기인들에게는 이러한데 필요한 신성공간에 대한 일정한 의식개념이 있었을 것이다. 만일 이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나름대로 祭壇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공간에 대한 입지적 특징이 어느 정도 공통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²³⁾ 그러나 호남지방에서 祭壇 支石墓로 판단 제시한 곳의 입지를 보면, 고개 마루와 구릉정상, 계곡 끝의 계곡평야, 산사면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확실한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祭壇 支石墓라고 한다면 祭儀 儀式이나 儀禮를 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貢獻이나 饗宴이 베풀어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발굴 조사된 無墓室 支石墓나 그 주변에서는 이러한 貢獻 혹은 饗宴의 흔적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만 곡성 요곡리 가군 5호에서는 無墓室 支石墓의 형태를 보이는데 1·2호 支石과 경계석 사이에서 약 30개의 저부편을 포함하는 다량의 무문토기들이 출토된 예가 있어²⁴⁾ 어떠한 한 단면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오히려 유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支石墓도 상당수가 되고 있다.

다음은 無墓室 支石墓를 墓標石으로 보는 경우이다. 대형의 괴석형 上石을 가지고 있으며, 군집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를 墓標石 支石墓로 보는데는 큰 이론은 없으나 이러한 圍石形의 형태를 보이는 無墓室 支石墓들이 군집 내에서 2기 이상씩 발굴된 예도 있고,²⁵⁾ 대부분의 발굴된 군집에서 이러한 圍石形의 墓室이 없는 형태와 墓室이 있는 형태의 것이 한꺼번에 여러기가 공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장적 성격의 유물 출토 예는 단순한 墓標石으로 볼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2) 이동희, 1997. 「앞글」(주 7), 32.

23) 계단고인돌에 있어서 이용조와 하문식은 이러한 입지에 있어서의 공통점으로서 어디서나 쉽게 바라다볼 수 있는 곳에 위치하며, 외형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용조·하문식, 1989. 「한국 고인돌의 다른 유형에 관한 연구-계단고인돌 형식을 중심으로-」 『동방학지』(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63, 29-65.)

24) 최성락외, 1997. 「앞글」(주 16), 268-270.

25) 고흥 장수계 지석묘군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상석을 갖는 1호는 오히려 매장시설이 있으며, 그보다 작은 2호와 9호 및 5호는 매장시설이 없는 무묘실 지석묘로 판단된다. (서성훈·성낙준, 「앞글」(주 8), 51.)

4. 湖南地方 無墓室 支石墓의 특징과 성격

1) 無墓室 支石墓의 特徵

호남지방에서 주로 나타나는 無墓室 支石墓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圍石形으로 분류되고 있다. 圍石形이라고 함은 上石을 받치고 있는 支石 자체가 墓室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 이영문은 이를 두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여 I형식은 上石하의 대형 支石 사이를 돌로 채워 그 자체가 墓室을 이루는 것, II형식은 20-30cm 크기의 支石들이 공백없이 둘러져 墓室을 이루는 것으로 분류하고, 후자는 이를 좀더 세분하고 있다.²⁶⁾

그런데 호남지방에서 발굴된 대형 支石墓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支石사이를 돌로 메워 墓室을 이루게 한 흔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이다. 물론 오랜 세월이 흘러 그 사이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발굴조사 도면과 사진 등을 검토하여 보면 어느 정도 돌을 채우거나 조밀하게 지석을 놓아 圍石形의 墓室을 보이고 있는 支石墓는 대체적으로 5톤 미만의 소형 上石을 갖는 것들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墓室의 흔적을 보이지 않고 드물게 支石들만 받친 支石墓는 5톤 미만의 소형 上石을 갖는 것들이 10%미만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이들 양자간에는 축조당시부터 나름대로 어떠한 기능이나 葬法上的 차이를 보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형식은 분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선 無墓室 支石墓(표 1)와 圍石形 支石墓(표 2)로 나눠 부르고자 한다.

먼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無墓室 支石墓가 갖는 입지는 특별한 특징이 없이 일반 支石墓들과 같이 구릉사면이나, 계곡평지, 구릉정상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군집 안에서의 위치는 대부분 다수의 支石墓들과 혼재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군집의 중앙이나 약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보인다. 그리고 군집 내에서 上石의 크기는 다소 소형의 上石을 보이기도 하자만 주로 대형이나 최대형을 보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같은 군집 내에서는 주로 石槨形 墓室을 갖는 支石墓와 공존하고 있으며, 일부는 無墓室形과 地上石槨形, 圍石形 등과 공존되기도 한다.

上石의 형태는 大形의 것은 塊石形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보다 작은 上石을 갖는 것은 板石形이나 장타원형의 형태를 보인다. 上石의 규모도 장축은 대체적으로 2m가 넘으며,

26) 이영문, 1993, 「앞글」(주 13), 130-131.

무안 성동리 안골 나군 9호 支石墓와 같이 장축이 9.32m가 되는 초대형의 것도 있다. 上石의 무게는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5톤 이상이 되는 것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30톤이 넘는 대형의 것도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支石의 수는 화순 만연리 2호에서와 같이 2매만을 고인 독특한 형태도 보이며, 3매를 삼각형상으로 배치한 것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4매를 고이면서 上石의 크기에 따라 7매까지 고이는데, 고창 암치리나 곡성 연반리 전기支石墓에서는 중앙에 支石을 고이기도 한다. 지석의 높이도 일반적으로 높은 것이 많아 평균 45cm 내외의 높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석이 크다는 특징 때문에 고이는 지석도 클 수밖에 없어서 높이가 높은 것으로도 판단되지만 실제 기둥과 같은 형태를 보이는 것도 있기 때문에 柱形支石의 형태를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10톤 미만의 上石 규모를 갖는 소형에서는 대부분 敷石을 시설하지 않았으며, 그 이상 대형의 上石을 갖는 支石墓에서도 支石이나 上石의 인쪽에 판석이나 잡석 등을 일부 깔은 예가 있는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조잡한 형태를 보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2) 無墓室 支石墓의 性格

無墓室 支石墓에서는 유물의 출토 예가 상당수 보이고 있기 때문에 祭壇이나 墓標石的인 기능 외에도 墓葬的 성격이 강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無墓室 支石墓의 성격이 墓葬으로서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이들 支石墓에서 과연 副葬的 성격을 지니는 유물들이 출토되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형식에 있어서는 모두 墓室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창 암치리 支石墓의 예에서와 같이 유물들이 支石墓 하부에 깔려 있는 敷石들 사이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支石墓 주위에서 출토될 가능성이 많아 출토 상황에 있어서 어떠한 정형성은 보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동안 支石墓 주변에서 많은 무문토기 파편들이 발견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이들은 支石墓 조성시 거행된 의례에 사용되고 버려진 파편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²⁷⁾ 즉 매장주체부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부장적 성격의 유물로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주변에서 나타나는 유물들은 부장적 성격보다는 의례적 부산물로 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일본 支石墓에서의

27) 김재원·윤무병, 1967. 『한국지석묘연구』(국립중앙박물관) 12.

유물출토 예는 대부분 상석아래 개석과의 사이에서 출토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支石墓에서도 墓室 내에서 출토되는 유물뿐만 아니라 墓室 상면에서 출토되는 토기편이나 기타 유물들도 대부분이 支石墓 축조시 정식으로 유물을 부장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고, 한국의 경우에도 墓室 내부보다는 도리어 墓室外부에서 출토되는 예가 훨씬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되어 지기도 한다.²⁸⁾ 또한 이상길은 매장주체부 외의 부석층이나, 유구 주변에서 석기나 토기 등을 파쇄하여 투기하는 다양한 예를 바탕으로 支石墓를 축조한 사람들의 장송의례행위와 관련하여 많은 분석을 이루어 내고 있다.²⁹⁾

그런데 無墓室 支石墓에서는 매장주체부가 없기 때문에 이들 유물이 부장적 성격인지, 아니면 장송의례와 관련된 성격의 유물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특정한 무덤 주변에 다량의 유물이 산포하고 있는 경우를 장송의례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을 때,³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주 대치리 7호 지석묘와³¹⁾ 순천 요곡리 가군 5호 지석묘를 제외하고는 유물이 출토되는 無墓室 支石墓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집중적인 현상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승주 대치리의 경우 지석 주위에서 1개체분의 무문토기 10편이 출토되고 있음은 부장적 성격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이 외에 앞에서 소개한 암치리 支石墓에서는 石斧, 紅陶 1편, 일부 복원이 되는 無文土器 2개체분만이 출토되고 甕器를 제외한 전혀 다른 유물들은 출토되지 않았다. 그리고 승주 우산리 곡천 1호에서는 支石 옆에서 미완성석기와 주변에서 무문토기편이 출토되었으며,³²⁾ 곡성 현정리 5호는 반지하식의 석곽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석축과 무문토기가, 1호에서는 무문토기·공이·석도·석축 및 支石 아래에서 석경과 삼각형 석도 등이 출토되었다.³³⁾ 그리고 여수 오림동 6호에서도 上石아래 적석 사이에서 석착 1점과 무문토기편 3점이 출토된 바가 있다.³⁴⁾ 또한 곡성 연반리 전기 2호는 圍石形으로 보기도 하지만 암치리나

28) 심봉근, 1981, 「한·일 지석묘의 관계 -형식 및 연대론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한국고고학연구회) 10·11, 100-101.

29) 이상길, 1999, 「청동기시대 의례에 관한 고고학적 연구」(대구 효성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80-125.

30) 이상길, 1999, 「앞글」(주27), 82.

31) 임영진, 1991, 『승주 대치리 지석묘군』(전남대학교 박물관), 26-27.

32) 이용조의, 1998, 「우산리 곡천 고인돌」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Ⅱ』(전남대학교 박물관), 29.

33) 조현종의, 1997, 「곡성 현정리·연반리유적」 『호남고속도로 확장구간(고서~순천간)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Ⅰ』(전남대학교 박물관), 215-217.

34) 이영문·정기진, 1992, 『여수 오림동 지석묘』(전남대학교 박물관), 36-37.

무안 성동리 안골 다군 1호 支石墓와 같이 上石 아래 중앙에 支石을 고이고 있는 형태를 보인다. 여기에서는 무문토기·홍도·석부·석봉·숫돌·원통형석기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³⁵⁾ 이와 같이 無墓室 支石墓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토기들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석기류와 토기류가 같이 공반하고 있다고 하는 점은 이 유물들이 副葬의인 성격을 강하게 띠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와 같이 無墓室 支石墓들에서 유물을 출토시키는 예는 약 50%에 달하고 있다.

반면 전혀 유물이 나오지 않는 예도 50%가 넘게 확인되나, 호남지방 支石墓에서는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는 예가 허다하다. 승주 광천리 支石墓群은 모두 5기가 군집해 있는데 이중 1기는 無墓室의 형태를 보이며, 나머지는 석곽형을 보이고 있는데 5기 모두에서 전혀 유물이 보이지 않는 예가 있다.³⁶⁾ 고창 운곡리와 용계리에서 발굴조사된 14기의 支石墓에서도 전혀 유물이 출토된 바가 없고,³⁷⁾ 고창 죽림리에서 발굴조사된 17기의 支石墓 墓室에서 뿐만 아니라 조사지역 주변에서도 전혀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³⁸⁾ 따라서 無墓室 支石墓에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만으로 墓葬의 기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속단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러한 墓葬의 기능을 한다고 판단되는 無墓室 支石墓의 원류에 대해서는 현 단계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79톤의 대형 上石을 갖추고 하부에 敷石이 있으며, 여기에 낮고 조잡하게 꾸며진 석관형 墓室과 墓室 중앙에 1개, 주위에 7개의 支石을 둘러 무안 성동리 안골 다군 1호 支石墓 등은 이를 추적해 볼 수 있는 자료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 支石墓에서는 墓室과 적석부에서 무문토기 1개체분의 유물이 출토되고, 支石의 높이는 40-80cm 정도의 크기이다.

그런데 無墓室 支石墓가 墓葬의 기능이 강하다면, 과연 어떠한 매장방법을 썼을까 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발굴조사에서 나타난 적극적인 자료는 없다. 단지 몇 가지의 문제를 추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우선 屍床이나 棺臺로 추정되는 유구의 존재이다. 앞서도 밝힌 바와 같이 이러한 屍床이나 棺臺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평평석의 깔림 형태는 고흥 장수제 제5호 지석묘에서

35) 최성락·이영문외, 1997, 「곡성 연반리 지석묘」 『호남고속도로 확장구간(고서~순천간)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I』(전남대학교 박물관), 463-467.

36) 임영진, 1994, 『승주 광천리·비룡리 지석묘군』(전남대학교 박물관)

37) 전영래, 1984, 『고창, 아산지구지석묘발굴보고서』(전주시립박물관)

38) 전영래, 1993, 『고창, 죽림리지석묘군 발굴보고서』(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보인다. 조사보고서에서는 주위에 흩어진 석괴들로 미루어 석곽시설로 보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조사자들의 의견 일치를 밝히고 있으나,³⁹⁾ 屍床이나 棺臺일 가능성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고창 암치리에서도 조사과정에서 墓室의 흔적이 전혀 없으며, 지석 안쪽의 敷石이 무질서하게 놓이는 반면 일부에서 3-4매의 비교적 상면이 평평한 석재들이 이어져 있는 것이 확인되어 이도 屍床이나 棺臺로 사용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木棺의 사용흔적이 청동기시대 토광묘에서 일부 확인되고 있고,⁴⁰⁾ 日本의 福岡縣 志摩町 新町遺蹟 등 현해탄과 면한 支石墓에서는 木棺을 직장하고 있음은⁴¹⁾ 우리 나라 支石墓에도 木棺의 사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이러한 無墓室 支石墓 하부에 木棺을 설치했을 경우에는 이를 다시 흙으로 덮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창 암치리 支石墓의 敷石施設 상면에서는 흑색의 부석토들만 보였지만 지석의 밖으로는 비교적 얇고 평평한 석재를 사용하여 잘 깔았는데 비해, 지석의 안쪽 棺臺나 屍床臺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잡석으로 무질서하게 깔고 있음은 이 안쪽에 흙을 덮기 때문이 아닌가 판단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無墓室 支石墓에서 나타나는 대부분의 부석시설도 이와 같이 조잡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二次葬法이나 火葬法의 사용도 고려해 볼 수 있다. 二次葬法은 墓室의 규모가 작은 것들이 상당수 보이고 있어서 유추해 볼 수 있다.⁴²⁾ 특히 같은 고창지역인 운곡리 支石墓 B-3호의 경우 대형의 상석 아래에 장축 110cm 단축 45cm 깊이 30cm의 아주 작은 墓室이 확인되어⁴³⁾ 이도 하나의 二次葬法에 의해 만들어진 支石墓로 파악하고 있다.⁴⁴⁾ 그리고 火葬法에 의한 葬法도 우리 나라 支石墓에서는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일본의 福岡縣 谷り田遺蹟의 支石墓人의 인골은 火葬骨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⁴⁵⁾ 통해서 우리 나라 支石墓人들도 화장했을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창 성송면 신용제에 위치한 支石墓도 柱形의 지석을 갖는 형태로 墓室 등의 하부구조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석 안

39) 서성훈·성낙준, 1984. 『고흥장수제지석묘조사』(국립광주박물관), 40-42.

40) 하인수, 2000. 「남강유역 무문토기시대의 묘제」 『진주남강유적과 고대일본』(경상남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137-238.

41) 橋口達也, 2000. 「河仁秀報告に對する討論」 『진주남강유적과 고대일본』Z(경상남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42) 이영문, 1993. 「앞글」(주13) 271-273.

43) 전영래, 1985. 「앞글」(주 37) 18-19.

44) 전영래, 2000. 「고창 고인돌 유적의 가치와 보전방향」(유인물)

45) 古門雅高, 2000. 「古代日本(九州)の支石墓」 『진주남강유적과 고대일본』(경상남도, 인제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317.

쪽의 규모가 1m 정도밖에 되지 않아⁴⁶⁾ 이를 墓葬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러한 二次葬法이나 火葬法에 의한 葬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二次葬法이나 火葬法이 사용되었을 경우 어떠한 형태의 매장이 이루어졌는 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현 단계로서 이를 확인할 정확한 자료는 없다. 그러나 고창 운곡리의 대형 상석을 갖는 支石墓 아래에 근대의 옹기 1점이 놓여 있었는데, 이 안에는 소아의 유골이 들어 있었던 점은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만하다고 생각된다. 고창 암치리 支石墓 하부에서도 상당수의 옹기가 출토되었는데 이들도 이러한 성격의 옹기로 판단된다.

어떻든 無墓室 支石墓의 支石의 높이에 있어서도 일단 대형의 上石을 갖는 支石墓들이 많기 때문에 支石의 높이도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평균 45cm 내외의 높이를 보이는 등 주형지석의 형태를 하고 있다는 점은 支石墓의 축조 이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墓葬으로서의 사용을 위하여 높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 맺는 말

호남지방의 支石墓 발굴조사에서 상당수가 無墓室 형태를 보이는 支石墓들이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유물이 출토되지 않거나, 출토되더라도 작은 편들로 빈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 집단들의 협동과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어떤 상징적인 기념물로서 제의적 성격이나, 집단의 공공집회 또는 타 집단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건조물로서 祭壇 支石墓로 해석되어지기도 하였다. 그리고 묘역을 상징하는 기념물 내지는 묘역 조성 집단의 권위와 위용을 드러내기 위한 墓標石으로서의 기능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墟墓나 假墓적인 성격 혹은 神體나 里程標 등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祭壇의 성격으로 보는 것은, 일단 제의의식을 행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신성공간이라는 입지적 공통점이 찾아지지 않으며, 제의의식에 수반될 수 있는 貢獻이나 饗宴의 흔적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墓標石의 성격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도 단순히 墓標石으로만 본다는 데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46) 김선기, 1997. 「앞글」(주 11) 168-169.

이러한 祭壇支石墓나 墓標石 支石墓는 일반적으로 圍石形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상당수의 규모가 큰 支石墓에서는 작은 규모의 支石墓와 같이 墓室의 기능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支石墓는 형식분류에 있어서 별도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無墓室 支石墓는 祭壇이나 墓標的인 기능을 한다고도 할 수 있지만, 고창 암치리 支石墓에서와 같이 상당수에서 부장적 성격의 유물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 墓葬으로서의 기능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호남지방 支石墓에서는 유물을 부장하지 않는 예가 허다하기 때문에 無墓室 支石墓에서 유물이 출토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墓葬의 성격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無墓室 支石墓가 墓葬의 성격으로 사용되었을 때 어떠한 葬法을 사용했는지는 앞으로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기 전에는 단언할 수 없다. 하지만 상당수의 無墓室 支石墓의 支石에서는 높이가 높은 형태의 것이 많다는 점이 주목되며, 일부에서는 屍床이나 棺臺로 추정되는 흔적도 약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관련 유적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木棺의 사용과 二次葬法 그리고 火葬法에 의한 매장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추정해 보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이러한 葬法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많은 자료가 축적되면 다시 검토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며 이상과 같이 호남지방에서 발견되는 無墓室 支石墓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해보았다.

표1. 無墓室支石墓現況表

번호	유적명	입지	위치	공존 유구	상석형태		상석규모		방향	지석 개수	지석 높이	부석	출토유물	형식	기타
					평면	단면	길이	폭							
1	승주 오봉리 대근 5호	산기슭 말단	다수상석과 석곽 혼재	무석실 석곽형	부정형 평면	170	50	40	(0.7)	남북 3매?	20 내외	무	무		윤덕향 1987
2	승주 대곡리 곡천 3-2호	산곡 평지	다수상석과 석곽 혼재	무석실 석곽형	터원형	180	130	60	(2.5)	남북	4 불명	무			정영호 1986
3	승주 우산리 곡천 3-2호	구릉 사면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형 위석형	부정형 평면	150	120	90	(3.0)	북서 남동	4 내외	무	지석안쪽 지석, 무문토기 지석밖 무문토기	바둑판	이용조 1988
4	승주 유평리 유천 6호	구릉 사면끝	다수상석 혼재, 중형	석곽형 무석실	부정형 평면	237	120	47	(3.0)	남북	3 이상	무	무문토기과편	무석실	이창규 1988
5	승주 유평리 유천 8호	구릉 사면끝	다수상석 혼재, 최대형	석곽형 무석실	반원형 평면	245	160	55	(3.5)	남북	4	무	무.(비탈 고지에 석렬 노출)	무석실	이창규 1988
6	화순 만연리 3호	구릉 정상부	7기의 상석 혼재, 소형	무석실	오각형 평면	210	170	60	(3.6)	남북	1?	무		가묘 의례	임영진 1993
7	승주 유평리 유천 7호	구릉 사면끝	다수상석 혼재, 중형	석곽형 무석실	터원형 평면	228	170	67	(4.5)	남북	4	무	무.(비탈 고지에 석렬 노출)	무석실	이창규 1988
8	화순 만연리 4호	구릉 정상부	8기의 상석 혼재, 중형	무석실	부정형 평면	280	220	40	(4.9)	북동 남서	1?	무		가묘	임영진 1993
9	곡성 현정리 5호	산기슭 말단	57기 상석 혼재, 중형	석곽형 위석형	부정형 평면	280	180	60	(5.8)	동서	6개 석재	부분 참석	조사과정에서 석축 무문토기 저부	석곽?	조현중 1997
10	승주 신평리 금평 2호	산곡 평지	다수상석 혼재, 중형	석곽형 무석실	장방형 평면	200	160	90	(6.5)	북동 남서	3 내외	무	무문토기동체편 (지석주위 약간 활석)	위석식 도광형	임병태 1987
11	고창 운곡리 B-7호	산기슭 말단	다수상석 혼재, 중형	석곽 무석실	부정형 평면	300	160	90	(8.0)	남북	3 내외	무	무. 지석 1매는 판석형	무석실	전영래 1984
12	승주 대곡리 도룡 4-1호	산곡 평지	다수상석과 석곽 혼재	무석실 석곽형	장방형 평면	260	150	120	(8.0)	남북	6 불명	무			정영호 1986
13	승주 대치리 7호	산곡 평야	7기 중 부단	석곽 6기 석곽 5기	장방형 평면	195	185	120	(8.0)	북서 남동	29이상	무	지석주위 1개체분 10편 여러개체 10	묘포식 위석형	임영진 1991

번호	유적명	입지	위치	공존 유구	상식형태		상식규모			방향	지식		부석	출토유물	형식	기타	
					평면	단면	길이	폭	두께		무게	개수					높이
14	곡성 현정리 1호	산기슭 말단	5기 상석혼재, 최대형	석곽형 위석형	원형	장방형	250	220	90	8.5	북서 동남	3	40~47	외곽까지	제단 기념물	조현중 1987	
15	승주 오봉리 다군 7호	산기슭 말단	다수상석과 석곽 혼재	무석실 석곽형	타원형	불명	260	200	90	10.0	남북	2 이상	20 내외	무	지석외부 유경석식축 1	윤덕향 1987	
16	무안 성동리 안골가군 1	계곡 평지	4기중 남쪽 2기 병렬	제방석	장타원	장방형	398	240	76	12.0	북동 남서	4	28~50	지석 안쪽	무, (석실유실추정)	이영문 1987	
17	고흥장수제 5호	계곡 평지	12기 상석 혼재, 중형	석곽형	계형	부정형	293	165	120	13.5	북서 남동	5	20~55	3매 판석	무문토기편, 적갈색격자문연 질토기편	서성훈 1984	
18	곡성 연반리 1호	산기슭 말단	3기 상석혼재, 최대형	개는광판	장방형	부정형	245	190	170	14.0	동서	5	55 내외	무	지석아래 석부1점, 지석묘주 위 토기편 석재	제단기 기념물	조현중 1987
19	순천 용당동 5호	산기슭 말단	5기 상석, 장주형0기	석곽묘	장방형	계형	246~128	151~41	277	14.5	동서	7	30~70	내부 짐석	백자, 와편, 외반구연호	신표, 이정표	이동희 1987
20	순천 요곡리 가군 5호	산기슭 말단	상석혼재, 최대형	석곽형 위석형	타원형	장방형	366	242	107	15.0	북서 남동	4+2	25~30	부분 짐석	12호의 지석과 경계석사이 다량 무문토기	위석형 제의적	최성락 1987
21	여천 평여동 산본다군 1	산기슭 평지	3기와 5기 석곽 혼재	석곽형	장방형	장방형	250	200	170	18.0	동서	7	20~50	지석 안쪽	무(부석은 상석평면 규모와 비슷)	묘표형 위석?	이영문 1983
22	승주 광천리 2호	계곡 평지	5기 혼재	석곽형	오각형	장방형	290	210	120	20.0	남동 북서	3	30 내외	부분 짐석	5기 모두 유물이 없음(삼각형상의 지석배치)	묘표석	임영진 1994
23	회순 만연리 2호	구릉 정상부	6기의 상석 혼재, 중형	무석실	장방형	판석형	610	300	80	25.0	북동 남서	2	30~40	무	무	기묘	임영진 1983
24	고흥 장수제 2호	계곡 평지	12기 상석 혼재, 중형	석곽형	방형	장방형	305	295	145	26.4	북서 남동	6	35 내외	내부 짐석	무	위석?	서성훈 1984
25	고창 운곡리 A-4호	산기슭 말단	다수상석 혼재, 대형	석곽 무석실	방형	구배형	410	375	115	30.0	북동 남서	4	35 내외	안쪽 약간	무	무석실	전영태 1984
26	고창 운곡리 A-7호	산기슭 말단	다수상석 혼재, 대형	석곽 무석실	타원형	구배형	475	384	90	30.0	북동 남서	4	30 내외	중앙 판석	무	무석실	전영태 1984

번호	유적명	입지	위치	공존 유구	상석형태		상석규모			반향	지석		부석	출토유물	형식	기타
					평면	단면	길이	폭	무게		무게	개수				
27	여수 오림동 6호	구릉 사면	10여기상석, 최대	석곽 석곽형	장방형	장방형	320	20029	210	32.0	2	40 내외	부분 잠석	상석하 적석에서 석착 1점, 무문토기편 3점	묘표식	이영문 1992
28	여천 평여동 산본나군 1	산기슭 대지	971 2열 혼재	석곽형	장타원	부정형	360	0	240	35.0	2이상	25 내외	지석 인쪽	무(상석규모 제외 큼)	묘표식 기념물	이영문 1993
29	곡성 연반리 전기 2호	구릉 사면	271위차상석 대형	모두 위석형	장방형	부정형	330	280	298	35.0	1+6	30~60	내부 일부	무문토기 흉도 삼각형 석도 석검 석촉 석부 등	위석형	최성락 1997
30	여천 적량동 상적 2호	계곡 평지	다수상석과 석곽혼재	석곽형	장방형	장방형	340	310	230	50.0	4	20~70	안쪽 약간	무문토기저부 1. 편 4. 원반석. 안쪽 잔자갈층	위석식 묘표식	전남박 1993
31	곡성 연반리 다군 2호	구릉 사면	371상석혼재, 최대형	71는 석곽, 61는 석곽	미름모	장방형	410	370	210	55.0	1+6	30~50	무	무	위석형	최성락 1997
32	승주 비룡리 지석묘	계곡 평지	단독		장방형	정방형	290	280	260	60.0	5	30~50	지석 안쪽	무(말발굽형 지석배치)	신앙, 의식	임영진 1994
33	승주 우산리 곡천 1호	구릉 사면	다수상석혼재, 최대형	석관형 무석실	부정형	장방형	500	360	230	80.0	7	40 내외	무	지석열 미완성석기, 무문토기편	제단형 비둑판	이용조 1988
34	영암 청룡리 1호	산곡 평지	971 상석, 석곽, 최대		반원형	부정형	540	450	150	80.0	6	35~50	안쪽 판석	적석사이에서 무문토기편 적색칠 돌.	석실 파괴	목대박 1984
35	고창 암치리 지석묘	산기슭 사면	단독	지상 석곽식	타원형	장방형	768	504		85.0	1+6	30~70	상석 일부	무문토기 2점, 흉도편 1점, 석부 1점. 옹기	무묘실	김선기 1999
36	무안 성동리 안골나군 9	산기슭 평지	971중 남쪽 독립(20m)	지상 석곽식	장타원	구배형	932	650	388	200.0	5	38~60	지석 주위	무(제일 높은곳에 위치)	기념물 제단	이영문 1997

표2. 圍石式支石墓現況表

번호	유적명	입지	위치	공존 유구	상식형태		상식규모			방향	지석		부석	출토유물	형식	기타
					평면	단면	길이	폭	두께		무게	개수				
1	승주 죽산리 다균 1-5호	계곡 평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 위 위석형	장방형	판석형	100	47	10	(01)	남북	다수	발명	무	위석형	이영문 1993
2	승주 우산리 10-1호	낮은구릉 정상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 위 석, 토광형	원형	판석형	69	60	15	(02)	남북	3	8~10	무	위석형	최성락 1993
3	승주 우산리 6-3호	낮은구릉 정상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 위 석, 토광형	삼각형	판석형	65	44	28	(02)	북동 남서	1	28 내외	무	위석형	최성락 1993
4	승주 우산리 5-5호	낮은구릉 정상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 위 석, 토광형	방형	판석형	80	75	18	(02)	남북	4	15~ 22	무	위석형	최성락 1993
5	승주 우산리 6-1호	낮은구릉 정상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 위 석, 토광형	장방형	판석형	100	52	28	(03)	북서 남동	4	21 내외	무	위석형	최성락 1993
6	승주 우산리 6-2호	낮은구릉 정상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 위 석, 토광형	타원형	판석형	93	55	30	(03)	북동 남서	3	14 내외	무	위석형	최성락 1993
7	승주 우산리 5-3호	낮은구릉 정상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 위 석, 토광형	원형	판석형	74	71	37	(04)	동서	6	6~17	무	위석형	최성락 1993
8	승주 우산리 5-2호	낮은구릉 정상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 위 석, 토광형	방형	판석형	89	67	47	(05)	동서	2	13~ 15	무	위석형	최성락 1993
9	승주 우산리 5-4호	낮은구릉 정상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 위 석, 토광형	원형	판석형	101	95	35	(05)	동서	5	15 내외	무	위석형	최성락 1993
10	승주 우산리 내우 34호	낮은구릉 사면 끝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형 위석형	장방형	판석형	130	80	30	(05)	동서	10	20 내외	무	위석형	이영문 1995
11	승주 우산리 내우 36호	낮은구릉 사면 끝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형 위석형	장방형	판석형	130	100	20	(05)	동서	8	15 내외	무	위석형	이영문 1995
12	승주 죽산리 다균 1-6호	계곡 평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형 위석형	장방형	판석형	110	70	30	(05)	남북	다수	다수	방형	위석형	이영문 1995
13	승주 죽산리 다균 1-7호	계곡 평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형 위석형	타원형	판석형	120	70	25	(05)	동서	다수	다수	무	위석형	이영문 1995

번호	유적명	입지	위치	공존유구	상식형태		상식규모			방향	지식개수	부석	출토유물	형식	기타
					평면	단면	길이	폭	두께						
14	승주 우산리 7-1호	낮은구릉 정상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 위석, 토광형	방형	판석형	121	104	33	(0.7)	5	서반 부석	토기편 1	위석형	최성락 1993
15	승주 죽산리 다균 12-1호	계곡 평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형 위석형	타원형	판석형	190	90	20	(0.7)	다수	원형	석실주변 오목석, 지석편, 석제어망추 각 1.	위석형	이영문 1997
16	승주 우산리 5-1호	낮은구릉 정상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 위석, 토광형	장방형	판석형	103	52	49	0.8	4	무	무	위석형	최성락 1993
17	승주 죽산리 다균 11-1호	계곡 평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형 위석형	방형	판석형	150	140	25	(1.2)	다수	원형	무	위석형	이영문 1996
18	승주 우산리 23호	낮은구릉 정상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 위석, 토광형	장방형	장방형	182	96	50	1.2	5	무	무	위석형	최성락 1993
19	승주 대광리 신기 17호	계곡 평지	다수상석과 석곽 혼재	석곽형 위석형	부정형	판석형	190	108	40	(1.5)	7	안쪽 판석	위석 서쪽바깥언저리 1점 무문토기	위석석	이청규 1987
20	승주 시천리 살치나균 2호	구릉 사면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 석관, 위석형	원형	부정형	130	108	55	(1.5)	12	외곽 판석	석검자루, 석검봉부, 무문토기석계	위석형	최성락 1988
21	승주 죽산리 다균 14-1호	계곡 평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형 위석형	타원형	판석형	180	115	35	(1.5)	다수	타원	무	위석형	이영문 1998
22	승주 죽산리 다균 1-4호	계곡 평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형 위석형	장방형	장방형	170	120	45	(1.5)	다수	타원	무	위석형	이영문 1992
23	승주 우산리 10호	낮은구릉 정상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 위석, 토광형	원형	장방형	118	112	71	(1.7)	6	무	석축 1. 토기편 3	위석형	최성락 1993
24	승주 시천리 살치나균 8호	구릉 사면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관, 석곽, 위석형	원형	부정형	144	96	65	(1.8)	6	내부 자갈	무	위석형	최성락 1988
25	승주 죽산리 다균 1-1호	계곡 평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형 위석형	타원형	타원형	180	150	55	(2.0)	다수	타원	석실주변 홍도편	위석형	이영문 1989
26	승주 죽산리 다균 1-2호	계곡 평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형 위석형	타원형	타원형	200	165	50	(2.0)	다수	타원	무	위석형	이영문 1990

번호	유적명	입지	위치	공존유구	상식형태		상식규모			방향	지식개수	부석	출토유물	형식	기타
					평면	단면	길이	폭	두께						
27	여천 평어동 산본기근 2호	산기슭 발달	상석 4기 석곽 11기	석곽형	장방형	환석형	140	110	45	(20)	7	무	상석 남서쪽모서리 밖에서 유구석부 1점	위석형	이영문 1983
28	승주 시천리 살치나근 10	구릉사면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관석곽, 위석형	방형	방형	154	112	70	(25)	7	모실 자갈	하부구조내에서 어망추, 무문토기저부, 흉도편	위석형	최성락 1988
29	승주 시천리 살치나근 15	구릉사면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관석곽, 위석형	방형	부정형	170	123	65	(25)	6	모실 자갈	묘실주의 무문토기편	위석형	최성락 1988
30	승주 죽산리 다근 1-3호	계곡평지	다수상석 혼재, 중형	석곽형 위석형	장방형	장방형	225	115	50	(25)	다수	원형	무	위석형	이영문 1991
31	승주 시천리 살치나근 1호	구릉사면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관석곽, 위석형	타원형	장방형	172	115	87	(30)	8	모실 내부	하부구조주변에서 무문토기, 석재	위석형	최성락 1988
32	승주 우산리 내우 35호	낮은구릉 사면끝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형 위석형	장방형	장방형	170	130	65	(30)	4	무	석재 1, 무문토기편	위석식	이영문 1988
33	승주 목교리 북교 35호	구릉사면	다수상석 혼재, 중형	석곽형	방형	장방형	208	170	76	(40)	2 이상	무	주위 무문토기	묘표식	정영호 1998
34	승주 우산리 내우 37호	낮은구릉 사면끝	다수상석 혼재, 중형	석곽형 위석형	장방형	장방형	210	150	80	(40)	6~8	무	무	위석형	이영문 1988
35	승주 유평리 유천 2호	구릉 사면끝	다수상석 혼재, 중형	석곽형 무석실	장방형	환석형	230	130	55	(40)	7	무	무	위석형	이청규 1988
36	승주 사수리 대진 10호	구릉 사면끝	다수상석 혼재, 중형	석곽형 무석실	장방형	장방형	270	120	70	(45)	7	붉은 흙	갈판	위석형	이용조 1988
37	승주 시천리 살치나근 4호	구릉사면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관석곽, 위석형	타원형	장타원	180	123	102	(45)	7	약간 자갈	내부 무문토기저부 동체 주 변 무문토기편	위석형	최성락 1988
38	승주 대광리 신기 15호	계곡평지	다수상석과 석곽 혼재	석곽형 위석형	부경형	장방형	235	170	76	(50)	6~7	무	북쪽지석틈에서 타날문경질 질토기편 1점	위석식	이청규 1987
39	승주 대광리 신기 19호	계곡평지	다수상석과 석곽 혼재	석곽형 위석형	장방형	장방형	215	134	98	(50)	8	외곽	서남지석틈에서 타날문경질 토기, 슷들 1점	위석식	이청규 1987

번호	유적명	입지	위치	구조 유구	상식형태		상식규모			방향	지식		부석	출토유물	형식	기타
					평면	단면	길이	폭	두께		무게	개수				
40	승주 시천리 살치나군 12	구릉 사면	다수상석 혼재, 중형	석관석곽, 위석형	장타원	장타원	260	153	74	(50)	5	15 내외	무	무문토기저부 2(대웅), 구 연, 동체부	위석형	최성락 1988
41	승주 우산리 내우 49호	낮은구릉 사면끝	다수상석 혼재, 중형	석곽형 위석형	장방형 장방형	장방형	260	180	65	(50)	2	10 내외	지석 안쪽	무	위석형	이영문 1988
42	승주 죽산리 다군 17호	계곡 평지	다수상석 혼재, 대형	석곽형 위석형	타원형	타원형	300	170	60	(50)	다수	30~ 40	타원	무	위석형	이영문 1999
43	승주 우산리 8호	낮은구릉 정상부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위석, 토광형	타원형	장방형	247	166	96	5.6	10	30~ 36	내부 전면	토기편 1	위석형	최성락 1993
44	승주 대광리 신기 18호	계곡 평지	다수상석과 석곽, 혼재	석곽형 위석형	장방형	장방형	205	148	95	(6.0)	5~8	30~ 50	무 절서	북쪽지석 외부 숫돌 1점	위석식	이창규 1987
45	승주 시천리 살치나군 9호	구릉 사면	다수상석 혼재, 중형	석관석곽, 위석형	방형	장방형	213	203	97	(8.0)	9	20~ 30	내외 편석	10호와의 사이에서 타날문 토기 무문토기	위석형	최성락 1988
46	순천 오곡리 가군 7호	산기슭 말단	9기 상석 혼재, 대형	석곽형 위석형	타원형	장방형	294	242	78	8.0	5	25 내외	무	지석내에서 유공석부 1점	위석형	최성락 1997
47	승주 우산리 7호	낮은구릉 정상부	다수상석 혼재, 중형	석곽,위석, 토광형	타원형	괴석형	260	164	153	8.2	7	20~ 40	서만 부석	부식토 석축, 석실해체작업 중 숫돌 토기편 각 1	위석형	최성락 1993
48	고흥 장수계 9호	계곡 평지	12기 상석 혼재, 대형	석곽형	장방형	부경형	370	250	147	19.7	7	33	약간 천석	무	위석형	서성훈 1984
49	곡성 연반리 전기 1호	구릉 사면	2기 위치 상석최대	모두 위석형	장방형	장방형	415	360	220	50.0	11	40~ 60	내부 잡석	무문토기, 홍도, 석부, 석봉, 숫돌, 원돌형석기 등	위석형	최성락 1997
50	승주 덕치리 신기 20호	낮은구릉 정상부	다수상석, 석곽혼재	석곽형	파손						5	45 내외	무	무문토기동체부 3편, 석축 1, 유구석부 1	위석형	윤덕향 1988

표3. 墓室形態가 不明確한 支石墓 및 參考資料 現況表

번호	유적명	입지	위치	공존 유구	상석형태		상석규모			방향	지식 개수	부석	출토유물	형식	기타
					평면	단면	길이	폭	두께						
1	승주 사수리 대전 12호	구릉 사면끝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형 무석실			110	90	30	(0.5)	동서	15~20	무	무	이용조 1988
2	순천서평리 8호	구릉 사면	다수상석 혼재, 중형	석곽 석곽형	타원형	판석형	223	102	20	0.7	북서 남동	무	상석과 적석사이 석축 1	적석만	임영진 1997
3	승주 오봉리 다군 6호	산기슭 말단	다수상석과 석곽 혼재	무석실 석곽형	부정형	불명	150	100	45	(1.0)	남북	불명	무문토기, 옹기편이 개석하 1m깊이		윤덕향 1987
4	영암 장천리 2호	평지	10여기상석, 소형	석관형	반원형	판석형	170	110	30	(1.0)	남북	무	무	석실혼적 없음	목대박 1984
5	영암 청룡리 5호	산곡 평지	9기상석, 석곽, 중형	석곽형 무석실	타원형	판석형	250	190	20	(1.5)	동서	무	무	판석잡석	목대박 1984
6	승주 우산리 내우 13호	낮은구릉 사면끝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형 위석형	방형	판석형	150	140	50	(2.0)	남북	불명	(상석반과)	무석실	이영문 1988
7	영암 청룡리 6호	산곡 평지	9기상석, 석곽, 중형	석관형 무석실	타원형	판석형	287	200	20	(2.0)	남북	무	판석밑 할석사이에서 석봉 편(부장품은 아님)	석실혼적 없음	목대박 1984
8	순천 서평리 4호	구릉 사면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 석곽형	타원형	부정형	168	103	65	2.0	남북	무	무	적석만	임영진 1997
9	승주 대광리 신기 13호	계곡 평지	다수상석과 석곽 혼재	석곽형 위석형	오각형	판석형	204	140	60	(3.0)	남동 북서	5?	무	무	이창규 1987
10	승주 오봉리 다군 2호	산기슭 말단	다수상석과 석곽 혼재	무석실 석곽형	부정형	장타원	220	150	55	(3.0)	남북	3이상	무	무	윤덕향 1987
11	승주 유평리 유천 3호	구릉 사면끝	다수상석 혼재, 소형	석곽형 무석실	타원형	장방형	193	125	64	(3.0)	남북	1이상	내부 간돌	무석실	이창규 1988
12	영암 장천리 3호	평지	10여기상석, 대형	석관형	삼각형	장방형	315	248	45	(3.0)	남북	무	판석잡석	석실혼적 없음	목대박 1984
13	순천 옥곡리 기군 9호	산기슭 말단	9기상석 혼재, 대형	석곽형 위석형	방형	장방형	166	130	85	3.5	북동 남서	2?	무	무	최성락 1997

번호	유적명	입지	위치	공존 유구	상식형태		상식규모			방향	지석		부석	출토유물	형식	기타	
					평면	단면	길이	폭	두께		무게	개수					높이
14	무안 성동리 인골나근 5호	산기슭 평지경계	4기중 남쪽 2기병렬	재상석곽식 재상석곽식	장방형	판석형	200	122	36	38	남북	불명	불명	상석 인쪽	유경석석축 1점, 표토제거층 출토(최소상석)	교관	이영문 1997
15	승주대광리 신기 14호	계곡 평지	다수상석과 석곽 혼재	석곽형 위석형	부정형	장방형	201	140	75	(40)	남동 북서	3?	교관	상석 외곽	동부지석사이 무문토기 1편	매장구 조물화	이영규 1987
16	승주 사수리 대전 1호	구릉 사면끝	다수상석 혼재, 중형	석곽형	장방형	270	150	70	(50)	동서	불명	불명	내부	지석 외곽	무덤방에서 무문토기 저부 편 두터움	위석?	이용조 1988
17	곡성 현정리 5호	산기슭 말단	5기 상석 혼재, 중형	석곽형 위석형	부정형	장타원	280	180	60	58	동서	6개 석재	파괴	부분 잡석	조사과정에서 석축 무문토 기저부	석곽?	조현중 1997
18	승주 사수리 대전 16호	구릉 사면끝	다수상석 혼재, 최대형	석곽형 무석실	장방형	230	140	120	(11.0)	남북	파괴	파괴	무	무덤방밖에서 무문토기 1편, 현돌도끼 1점	위석?	이용조 1988	
19	승주 죽산리 다군 1호	계곡 평지	다수상석 혼재, 대형	석곽형 위석형	타원형	삼각형	360	220	130	(17.0)	남북	4	불명	지석 인쪽	연석, 석기, 무문토기, 흉도, 김혜토기(부석무질서)	토광형	이영문 1988
20	승주 오봉리 다군 14호	산기슭 말단	다수상석과 석곽혼재	무석실 석곽형	부정형	부정형	380	230	100	(18.0)	남북	2이상	55~ 75	불명	주변 무문토기 및 자기편		윤덕향 1987
21	승주 죽산리 기군 11호	계곡 평지	다수상석 혼재, 최대형	토광형	장방형	380	190	(18.0)	남북	남북	7	30 내외	지석 인쪽	무	토광형	황용훈 1988	
22	무안 성동리 안골다군 2호	산기슭 말단	2기만 있음	석곽형	장방형	468	464	170	340	북동 남서	6~8	31~ 51	상석 인쪽	무	석관형	이영문 1997	
23	무안 성동리 안골다군 1호	산기슭 말단	2기만 있음	석곽형	장방형	639	460	132	79.0	남동 북서	1+7	40~ 80	상석 인쪽	무문토기 1점, 석실과 적석 부에서 1개체분, 지석	석관형	이영문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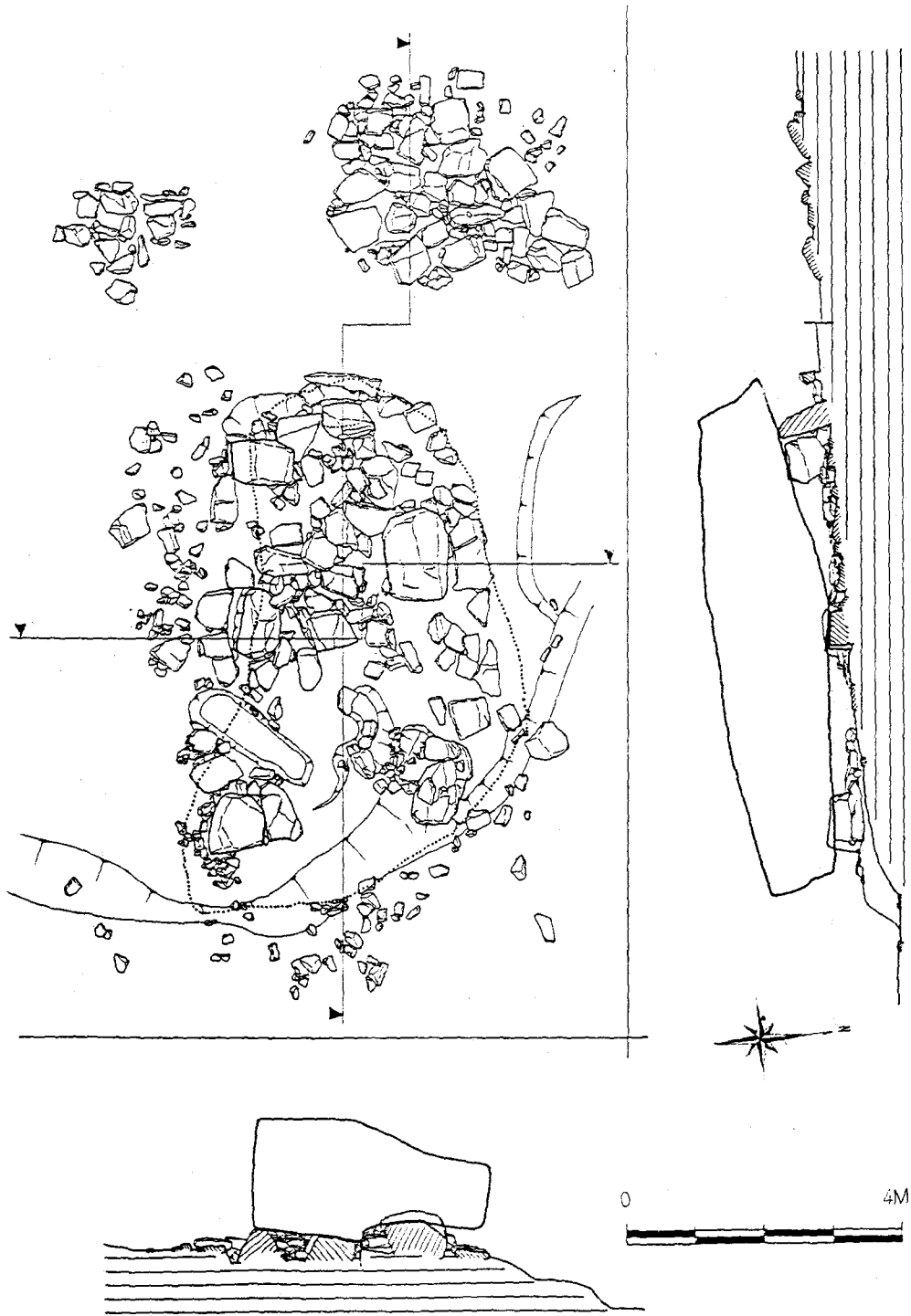
< 일러 두 기 >

1. 위의 표는 상석아래의 지석이 조밀하게 있거나, 지석사이를 메운 흔적이 있는 것을 위석식으로, 상석아래에 지석이 드물게 놓인 것을 무석실 지석묘로 구분하여 만들었다.
2. 표의 순서는 상석의 무게순으로 작은 것으로부터 큰 것으로 배열하였다.
3. 상석의 무게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그대로 기록하였으며, 보고서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필자가 직접 도면과 사진을 바탕으로 환산하여 ()속에 넣어 표기하였다.
4. 표에 나타나는 형식은 보고자가 보고한 형식의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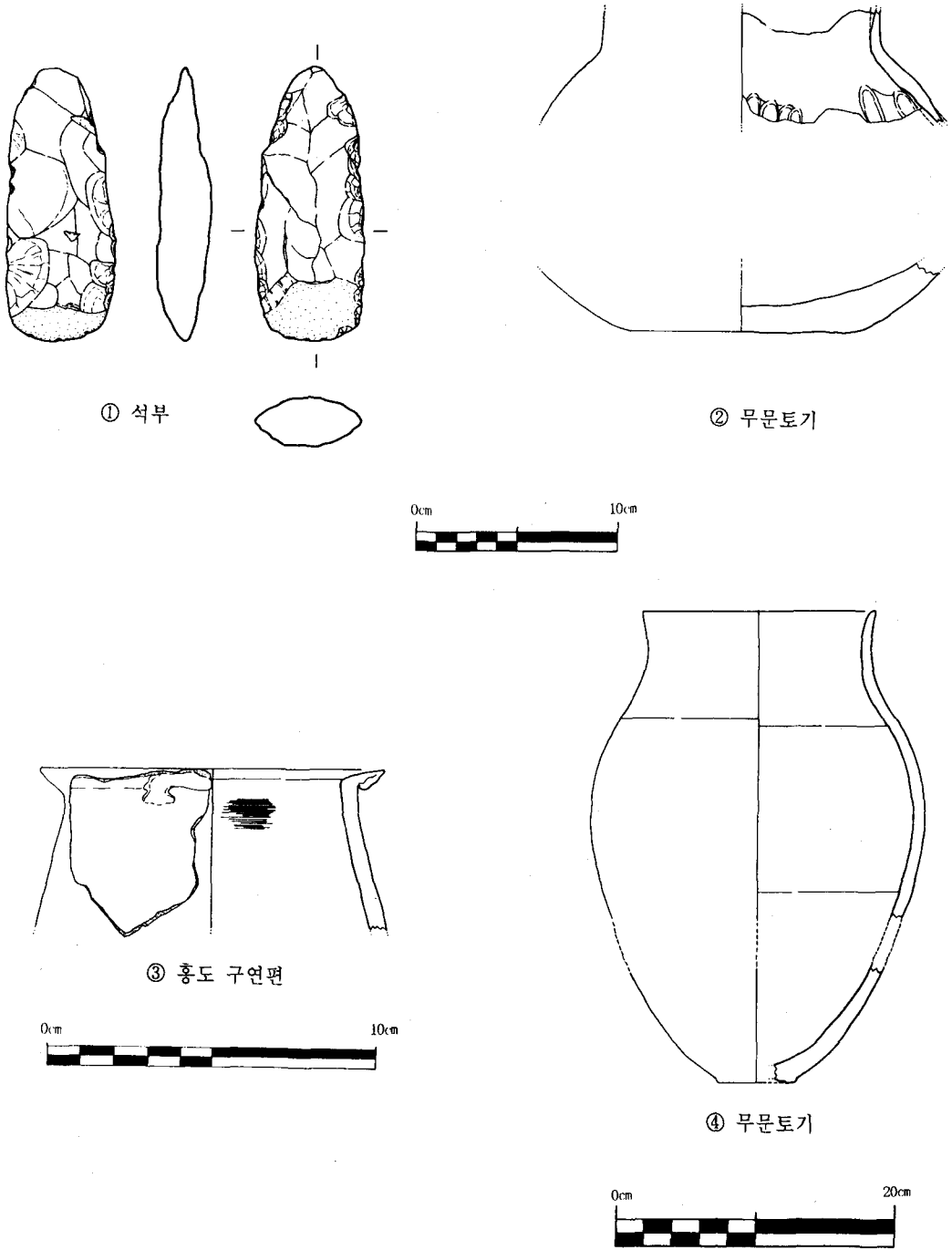
< 표의 참고문헌 >

- 목포대학교 박물관, 1984, 『영암 청룡리·장천리 지석묘군』(목포대학교 박물관)
- 서성훈·성락준, 1984, 『고흥장수제지석묘조사』(국립광주박물관)
- 송정현·이영문, 1988, 「죽산리 '다' 군 지석묘」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II』(전남대학교 박물관)
- 1988, 「우산리 내우지석묘」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I』(전남대학교 박물관)
- 윤덕향, 1987, 「오봉리 '다' 군 지석묘」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전남대학교 박물관)
- 1988, 「덕치리 신기지석묘」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II』(전남대학교 박물관)
- 이동희, 1997, 「순천 용당리 죽림 지석묘」(순천대학교 박물관)
- 이영문·정기진, 1992, 「여수 오림동 지석묘」(전남대학교 박물관)
- 1993, 「여천 적량동 상적 지석묘」(전남대학교 박물관)
- 이영문·정영희외, 1997, 「무안 성동리 안골 지석묘」(국립목포대학교 박물관)
- 이영문·최인선외, 1993, 「여천 평여동 산본 지석묘」(전남대학교 박물관)
- 이용조·이석린외, 1998, 「우산리 곡천 고인돌」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I』(전남대학교 박물관)
- 이용조·하문식외, 1988, 「사수리 대전고인돌」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V』(전남대학교 박물관)
- 이청규, 1987, 「대광리 신기고인돌」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전남대학교 박물관)
- 1988, 「유평리 유천고인돌」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V』(전남대학교 박물관)
- 임병태, 1987, 「신평리 금평지석묘」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전남대학교 박물관)
- 임영진, 1991, 「승주 대치리 지석묘군」(전남대학교 박물관)
- 1993, 「화순 만연리 지석묘군」(전남대학교 박물관)
- 1994, 「승주 광천리·비룡리 지석묘군」(전남대학교 박물관)
- 임영진·서현주외, 1997, 「순천 서평리 고인돌」 『호남고속도로 확장구간(고서~순천간)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I』(전남대학교 박물관)
- 전영래, 1984, 『고창, 아산지구지석묘발굴보고서』(전주시립박물관)
- 정영호, 1987, 「대곡리 도룡지석묘」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전남대학교 박물관)

- 1988, 「복교리 복교지석묘」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Ⅳ』(전남대학교 박물관)
- 조현중·신상효외, 1997, 「곡성 현정리·연반리유적」 『호남고속도로 확장구간(고서~순천간)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전남대학교 박물관)
- 최성락, 1988, 「시천리 살치 '나' 고인돌」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Ⅳ』(전남대학교 박물관)
- 최성락·고룡규외, 1993, 『승주 우산리 고인돌』(목포대학교 박물관)
- 최성락·이영문의, 1997, 「곡성 연반리 지석묘」 『호남고속도로 확장구간(고서~순천간)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전남대학교 박물관)
- 1997, 「순천 요곡리 유적」 『호남고속도로 확장구간(고서~순천간)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II』(전남대학교 박물관)
- 황용훈, 1988, 「죽산리 '가' 근 지석묘」 『주암댐수몰지역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Ⅲ』(전남대학교 박물관)



도면1. 고창 암치리 지석묘 실측도



도면2. 고창 암치리 지석묘 출토유물 실측도

Characteristic features of Dolmens without Burial Chamber Identifiable through those found in Amchi-ri, Gochang-gun

Kim, Sun-gi

A lot of dolmens without burial chamber have been brought to the light around Honam (southwestern provinces of Korea) area. Even though they are commonly classified as dolmens of surrounding stone type(圍石式), it seems necessary to put under the category of dolmens without burial chamber what can be characterized as so-called megalithic monument or altar with supporting stones arranged sparsely under the colossal cap stone. Most dolmens, basically, have large cap stones with 4 supporting stones, but some of them with larger cap stones have often upto 7 supporting stones. Characteristically, the height of pillar-formed supporting stones is 45cm in average.

In an investigation into a dolmen which was excavated in Amchi-ri, Gochang-gun together with 6 supporting stones in the circumference and one in the center under the large cap stone believed to be used as altar or megalithic monument, a piece of red burnished jar, 2 pieces of plain coarse ware pottery and one crude-form stone ax were dug out above the flooring stones under the cap stone, pointing to the probability that these items had been buried at the time of burial and, therefore, the dolmen was definitely a tomb. Considering the fact that articles of the deceased have been found in about 50% of all dolmens without burial chamber excavated in Honam area and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dolmens with burial chamber were excavated with no articles of the deceased, it may be too early to conclude that the dolmens without burial chamber can't be tombs.

If we presume that the dolmens without burial chamber are tombs as well, the most critical issue is what kind of burial method was it used. There are almost few data giving any obvious clues to this issue.

Judging from some examples of wooden coffins found in the Japanese dolmens and some traces of supports for wooden coffins found in some of dolmens in Korea, we can only assume that

wooden coffins might have been used. From rough finishing of flooring stones under the cap stone, we can also suppose that the wooden coffin was covered with clay after it had been buried. It is also possible to presume that there could be the second time burial or cremation. In this sense, we would like to refer you to the child bones contained in a modern pot under the cap stone of a dolmen found in Ungok-ri, Gochang-gun.

I hope this paper may just serve to raising some questions as to the dolmens found in Honam area as I think, at this time, we can only presume the way of burial of the old days, therefore, another study would be required after further data could have been collected to this end.